

2026
06

병리협보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amt.or.kr

CONTENTS

01 COVER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낮은 규제 철폐해야

02 FOCUS

-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해야 하는가?

03 KAMT NEWS

- 제518차 상임이사회
- 마르페메디칼 업무협약식
- 채혈업무 임상병리사 전담체계 구축 제2차 회의

06 CONTRIBUTION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다

제521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
주식회사 티알

SUNKWANG MEDICS
선광메디스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김미정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낮은 규제 철폐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대임병협)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5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및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에서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을 포함한 약 1,200명의 의료기사와 관련 수요자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생법안인 의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와 가두 행진을 전개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초고령 사회에 맞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 서비스'가 낮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으려 해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으로는 원외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통합돌봄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및 의사 출신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명옥, 한지아)의 국민보다 직역에 집중한 불명확한 반대 논리 탓에 '계속심사'로 계류되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낮은 의료기사법상의 원내에서만 제한되는 의사의 '지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이 사는 원외에서도 처방 기반의 '방문채혈 및 방문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 지도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환자 곁에 가지 않고도 앉아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이종장대의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이를 '의사의 수익 독점'을 위한 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또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안전 및 책임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 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기타 보완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구두나 서면 '처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착되어 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 밖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모순이다.', '1970년대에 갇힌 낮은 법과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가 범법 행위로 몰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돌봄통합지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방 기반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낮은 '의사 지도' 조항을 폐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문 진단검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보건의료인, 국민 수요자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인 의료기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70만 장애인과 1천만 노인 수요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7만 8천 명의 임상병리사들은 돌봄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 기 유

간호법 제정과 시행은 우리 보건의로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어떠한 명분도 면허와 자격, 교육과 책임의 원칙을 흐르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주장해 왔고, 하위 법령과 행정예고, 현장 민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대응해 왔다.

2025년 6월 「간호법」이 신법(新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특히,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 보조 및 진료 지원 업무에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간호인력이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련 법령 체계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 인력 미배치 상태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이 채혈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행정처분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간호법 추진의 배경과 임상병리사 업무영역 쟁점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추진 배경으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실제 관련 발표 자료에서도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직역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 변화는 어디까지나 기존 면허 체계와 법정 업무 범위의 원칙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환자 안전은 직역 간 경계의 해체가 아니라, 각 면허 직종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할 때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2024년 6월 19일 발의, 8월 28일 국회 통과, 같은 해 9월 제정이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대응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협회는 2023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간호법이 타 보건의로 직역과의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 삽입을 요구하며, 입법 단계부터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법정 업무가 타 직역의 포괄적 표현 속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정책 대응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의 명시적 제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은, 면허 체계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법령 단계에서 협회가 끌어낸 실질적 성과

협회의 대응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협회는 의료기사 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 수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애초 문제로 지적되었던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는 “직장 수지 검사(진단 목적은 불가)”로 수정되었고,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보조 지원” 문구는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이 조정은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모호한 문구가 현장에서 검사·채혈·생리기능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이다.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은 추가 업무 신고 제한에 관한 정리이다. 행정예고안은 43개 세부 행위 외의 추가 업무에 대하여, 시범 사업에서 수행 불가로 명시된 행위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가 예외와 우회 통로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 안으로 편입되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협회가 해당 고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간호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가 하위법령 단계에서 일정 부분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정해졌지만, 현장은 혼란스럽다.

문제는 간호법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현장이 자동으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협회가 파악한 현장 실태와 민원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임상병리사 미배치 상태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검사나 채혈 등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간호법상 진료지원업무의 한계를 엄격히 적용하고,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지도·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직역의 배타적 요구가 아니라, 무면허 검사 행위가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절실한 것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 정상화’다.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채혈·검체채취·생리기능검사·검사 분석과 같은 임상병리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업무영역을 각종 매뉴얼과 행정지침,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더욱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둘째, 무면허 또는 면허 외 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현장점검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협회가 함께 표준 업무 지침과 채혈 프로토콜, 검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넷째, POCT, 디지털 헬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검사 등 새롭게 확장되는 의료 환경에서도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협회가 제시한 전문자격 강화, 역할 재정립, 미래 영역 진출 전략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 행정과 현장, 정책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정교하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하위법령 관련간담회 (우)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간호정책과장 박혜진



제518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5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이사 19명 중 13명이 참석, 집행부 총원 45명 중 26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6년 제519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외 4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외 4건 ▲학술부 제3차 학술부 회의 외 5건 ▲교육부 교육센터 고도화 관련 교육부, 다루소프트 회의 외 1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외 3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외 2건 ▲정부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정례회의 외 1건 ▲대외협력부 2026년 제64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 외 1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외 1건을 보고했다.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마르페메디칼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적정성 검토용역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의 건이 의결되었고 기타 토의 후 제518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하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마르페메디칼 업무협약식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5월 20일(수) 오후 6시 서현역 게더공간대여룸 B룸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마르페메디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협회 측 3명, 마르페메디칼 3명으로 총원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현장검사(POCT)'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기유 정책실장의 인사말과 고인철 정무이사의 협회 비전 소개로 시작됐다.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마르페메디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르페메디칼 이승용 대표는 "협회와 뜻깊은 협력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검사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소개를 마친 뒤 본격적인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채혈업무 임상병리사 전담체계 구축 제2차 회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5월 28일(목) 오후 6시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채혈업무 임상병리사 전담체계 구축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채혈 표준지침(SOP) 개발과 온라인·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채혈 전문 임상병리사 제도 도입 등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실습용 모형 개발과 감염 관리 교육 강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도 공유됐다.

이광우 협회장은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핵심 업무"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대학 교육과정 개선과 대국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학생 대상 공모전 개최, 교육용 모형 개발, 교육과정 운영안 마련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병리사를 위한 혈액관리 실무 교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 및 후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난 5월 14일부터 양일간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공공기관 임상병리사들을 대상으로 '임상병리사를 위한 혈액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전국 20개 공공의료기관 임상병리사 총 23명을 대상으로 임상병리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혈액관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수혈 오류 및 혈액사고 예방, 수혈 이상반응 관리 등 실무와 함께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전산시스템 등 최신 기술 동향과 의료기관 인증평가, 건강보험제도 등 필수 행정 지식 교육도 포함해 실용성을 더했다.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강요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기유는 의료와 돌봄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건강방문 관리사업에서 간호직이 지역사회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왔다. 똑같은 보건 의료 전문가임에도, 왜 우리는 지역사회 보건 현장에서 번번이 '검사 장비 만지는 사람' 혹은 '검사실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현장 장비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 결과가 정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문 영역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공의료의 방향을 정하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올러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장윤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임상병리사의 혈액관리 실무 역량을 한층 높여 현장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돌봄과미래 후원금 전달식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5월 22일에 (재)돌봄과미래 회의실에서 (재)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 조경애 사무처장, 김나리 소통연수국장과 협회 이광우 협회장, 지우현 총무이사, 김기유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재)돌봄과미래에 통합돌봄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재)돌봄과미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과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교육사업, 후원 등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다. (재)돌봄과미래는 2027년 돌봄 재정 확대 활동, 다양한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돌봄 체계 구축 연구, 정책 토론회, 여론 조성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돌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재단의 활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부합하여 (재)돌봄과미래의 활동에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특별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전국 단위 '돌봄봉사지원단'을 중심으로 방문 검사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돌봄 임상병리사 교육과정'을 (재)돌봄과미래와 함께 전문 돌봄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통합돌봄 정책 시행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지역사회 현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후원금 전달식을 계기로 방문 검사 기반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재)돌봄과미래와 함께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동정

05월 06일 정보통신부-페르소나 AI 회의
05월 06일 회장단 회의
05월 07일 클라우드 서버업체 입찰 심사 회의
05월 14일 클라우드 서버 최우선 협상업체(가비아) 회의
05월 14일 제518차 상임이사회
05월 15일 국제 학생 포럼회의
05월 19일 클라우드서버 2차협상업체(이수시스템) 회의

05월 20일 마르페메디칼 MOU 업무협약식
05월 20일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05월 20일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
05월 22일 (재)돌봄과미래 후원금 전달식
05월 25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
05월 28일 채혈업무정착 TF 회의
05월 30일 제3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적정성 검토용역 보고서

본 용역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건축 사업 완료 이후, 설계도서·계약내역서·공사비 산출자료·준공 결과간의 정합성과 공사비 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 시공사변경 ▲ 공사비 증감 ▲ 설계변경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항목별 적정성·합리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용역은 제출된 설계도서, 계약내역서, 기성·준공 내역, 감리자료 및 현장 점검 결과 등을 근거로 수행되었으며, 본 검토 결과는 해당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객관적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검토 결과, 건축비는 통상적인 건축 관련 비용 산출 범위 ($\pm 10\%$)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착수시점이 건축비 상승 이전에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일정 조율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항목에서 ▲ 설계와 시공 간 불일치 ▲ 물량 산정 차이 ▲ 마감 및 설비 사양 변경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 검토 및 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 범위 내 일부 사실관계 및 관계자 협의 사항은 건설사 측과의 확인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으나, 준공 이후 검토가 이루어진 특성상 일부 내부 자재 및 시공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검토용역을 통해 일부 하자 보수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회 또한 하자 보수 기간 도래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병행함으로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사후 검토를 넘어, 향후 재건축 및 건축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사비 관리 기준 설정
- 설계·시공 관리의 투명성 확보
- 계약 및 발주 방식 개선
- 사업 리스크 최소화 및 의사결정 지원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 공사비 관리 강화
- 분쟁 및 의사결정 리스크 사전 예방

마지막으로 26 대, 27 대에 걸친 재건축위원회 (재건축추진위원회 T.F, 회관운영위원회)의 노고와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프로릭 & 코드아키텍츠

상세내용 바로가기
(정회원 대상)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다

현장을 지키는 임상병리사 선후배님들께



28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 최 병 호

학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 첫 직장에 입사해서 긴장하며 처음으로 배웠던 업무는 채혈, 이른 새벽 병동채혈을 위해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서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뢰된 검사 처방전(옛날에는)을 확인하고 준비한 용기와 주사기 등을 담은 채혈전용 바구니를 들고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병실로 날아다니며 검사 처방이 의뢰된 환자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잠에서 덜 깬 환자에게 인사하며 채혈을 했던 기억을 꺼내봅니다.

“채혈은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까?”

현장에서 채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업무 부담, 환자 응대의 긴장감, 반복되는 과정 속 피로감까지 고려하면 “이 일이 꼭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채혈은 결코 가벼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업무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검체 채취부터 분석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인력입니다. 채혈이 검사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직군입니다.

채혈은 단순한 주사 행위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며, 이후 모든 진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검사, 검사 소요 시간 지연, 임상 의료진과의 마찰, 환자 불신 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검사실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직군 간의 업무 분장의 논의가 아니라, 각 직군이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채혈을 누가 하느냐는 임상병리사의 존재 가치와 연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검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인 채혈이 다른 직군에 의해 수행되거나, 병원마다 임의로 나뉘는 구조라면 우리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업무 부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직역 전체의 구조 문제입니다.

채혈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할 업무라면, 결국 그 업무는 다른 직군과 함께하거나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채혈을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의 완성입니다.

검체 채취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책임질 때, 임상병리사는 진정한 검사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의 지속성 확보입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인공지능 기반 진단 기술의 도입과 자동화가 검사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단순 분석 업무만으로는 직업의 영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혈을 포함한 전체 과정의 책임자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물론 채혈이 쉽지 않은 업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업무를 다른 직군에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전문 영역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할 영역”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채혈을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임상병리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직역이 핵심 역할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임상병리사의 존재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채혈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업무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채혈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결국 임상병리사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돌아올 영역일 것입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글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겨봅니다.

‘현재가 미래를 도울 수 있는가?’



▲ 임상병리사가 채혈하는 모습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Korea, Seoul)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검사 의뢰
학술 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



 OPEN
Healthcare

 02-2114-8000
 www.ohc.global
 ohc@ohc.global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치매안심센터 물품 전달식 진행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에 소속된 봉사단 '다빈'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해 뜻깊은 온정을 나누며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봉사단 '다빈'은 지난 5월 14일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예방 도구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의 최진아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유광철 회장, 문기춘 '다빈' 회장 및 주요 임원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된 교구들은 센터 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이미 '다빈'은 재활 프로그램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봉사단 '다빈'이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펼쳐온 눈부신 봉사 활동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로부터 받은 활동기금 135만 원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봉사단은 이 지원금을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대신, 지역 주민을 위한 교구 구매에 전액 재기부함으로써 협회와 지역사회 간의 아름다운 '선순환 고리'를 완성했다.

한편, 경기도임상병리사회 봉사단 '다빈'은 앞으로도 전문 의료 봉사는 물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후원과 나눔 행보를 지속해서 전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2026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가운데증정식 참석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4월 29일(수) 오전 10시,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가운데증정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김민주 행정부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미래 보건의료 현장을 이끌어갈 임상병리사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였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예비 임상병리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전문 인재 양성과 임상병리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 제17회 APFMLS Symposium 참석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26 아시아 임상병리사 연맹(AAMLS)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Smart, Sustainable and Resilient: Advancing

Medical Laboratory Sciences in a New Era'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서정훈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과 발표자 등 총 12명이 참가하여 학술 교류를 가졌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일정 중 뉴타이페이스 협회와 MOU를 체결하며 자매결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대한협회·뉴타이페이스협회·서울시회가 공동 참여한 '시티 포럼(City Forum)'에 참석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학술 부문에서는 광주기독병원 백혜경 회원이 발표를 진행해 '우수 구연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정훈 회장은 "교류의 의미를 빛내준 양 사·도회 임원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2026년 제주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도 폐기능검사 보수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는 지난 4월 18일(토)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최신 검사 지견 공유를 위해 폐기능검사 보수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능검사의 정확성과 국가검진 확대 흐름에 맞춘 실무 중심 강의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교시는 영남대학교병원 추현혜 선생님께서 '폐기능 검사 방법 및 오류 시대처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실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사례와 정확한 검사 수행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 실무에 도움을 주었다.

2교시는 대구경상병원 권미옥 선생님께서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검진 확대에 따른 폐기능검사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3교시는 TR 대표 김병수 선생님께서 'TR과 함께하는 폐기능 검사교육'을 진행하며 장비 활용과 검사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폐기능검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최신 검사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도 폐기능검사 실무자 교육 실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4월 21일(화) 경남정보대학교 미래관에서 2026년도 폐기능검사 실무자 교육을 시행했다. 해당 교육은 폐기능검사의 이론적 기초와 실무 기술을 전수하여 지역 임상병리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폐기능검사의 표준 지침(Standardization)과 결과 판독법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신 장비를 활용한 1:1 실습 과정을 병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실무자는 "임상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검사 기법의 디테일을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직접 교정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이번 과정이 실제 검사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황원주 회장은 "시민 건강의 척도가 되는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병리사의 숙련된 검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산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및 집회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지난 4월 25일(토) 10시 해운대(재송동) 김미애 의원 부산 사무실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4월 26일(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임원진들 및 타 의료기사단체 관계자들과 연대하여 집회를 열고 임상병리사 및 의료기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에 나선 참가자들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임상병리사의 실제 업무 범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은 정확한 질병 진단의 핵심"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체계의 현대화와 법적 권익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황원주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특정 직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외침"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지역 사회 및 타 협회와 결속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4월 28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여 정책 소통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황원주 회장을 비롯해 강종원 부회장, 임준택 부회장, 서충원 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미팅에서 부산시회 임원진은 발언 기회를 통해 타 직능 단체 관계자들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한 법적 토대 마련이 국민 보건 향상에 직결됨을 강조하며, 권익 향상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정책 소통 행보는 앞서 진행된 실무 교육 및 집회 활동과 궤를 같이하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정치권 및 타 직능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따른 부산 지역 대규모 집회 참가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5월 7일(목)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역 광장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불발에 따른 부산 지역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집회는 법안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지역 사회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적극 동참하며, 법안 통과를 향한 지속적인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협회는 보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집회 현장을 가득 메운 함성은 단순히 법안 상정 무산을 규탄하는 것을 넘어, 임상병리사의 헌신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뜨거운 결집력을 동력 삼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근전도 핸드온 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는 5월 16일(토) 울산 동천동강병원 인근 트레저프라자 6층 회의실에서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근전도 핸드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주식회사 삼흥무역 임형준 이사가 맡아 근전도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생리검사실 김대성 선생님이 근전도 이론의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마지막 강의는 실제 장비를 활용한 근전도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20명의 회원은 현장에서 직접 검사 스킬을 익히며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25회 하루가족 되어주기 - 행복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석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와 (주)우리바이오텍 김남희 대표는 5월 20일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이 개최한 '제25회 하루가족되어주기 - 행복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이날 열린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권지연 회장이 그동안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자원봉사자 부문 대표이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관계자는 "비가 오는 곳에도 날씨에도 한결같은 달려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개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는 4월 26일(일) 오전 10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암센터 2층에서 상반기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이도왕 공보부회장, 광주사회 위준영 사업부회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최민규 교수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도왕 공보부회장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지원법 정책 추진, 학제 일원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촉구 등 중앙회의 주요 사업 활동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임상병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강의는 ▲'임상병리 분야 고시 개정 및 다빈도 위반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 장유진), ▲'수의진단 시장의 구조 변화와 성장기회: 기술혁신과 시장 트렌드 분석'(Aniwell BioScience 황민 대표), ▲'Zero-Defect 검사실을 위한 도전: 위험도 관리의 정석'(대구보훈병원 이재숙),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교육'(삼성창원병원 주희만)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곽진영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임상병리사의 권익 향상과 업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2026 제1차 하이브리드 보수교육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현준)가 5월 30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나이팅게일홀에서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 내 소외지역 회원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중앙회 홍보 영상 상영과 김현준 회장의 인사말, 권민주 총무이사 임명장 수여에 이어 ▲인공와우 수술의 이해(전북대병원 이재민) ▲데이터로 증명하는 미생물 검사(전주예수병원 임현영 팀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업무 범위(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 김동현 법제이사) ▲차세대 분자 바이오 기능 및 역할(원광대 박호 교수) 등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현준 회장은 "두 번째로 시행된 하이브리드 교육은 소외지역 종사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병리사의 교육 권리와 책임을 일깨운 계기"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더욱 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2026년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는 5월 1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기관의 학술구연 발표가 진행됐다. ▲'핵의학검체검사실 검사용 키트의 유해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 사례(원광대학교병원 과지종 회원), ▲'핵의학 검사 항목의 내부 QC 기반 정밀도 기준 설정 방안(서울아산병원 이선호 회원), ▲'고농도 β-hCG검체에서 후크효과 발생 및 희석 보정 절차의 유용성 평가(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한요람 회원), ▲'정성검사의 측정불확도 추정 및 판정기준에 대한 임상적 활용'(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박준모 회원)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이번 학회에서 신설된 제1회 업무지식 공유에서는 ▲'EQC 결과 평가에서 허용범위가 벗어났을 경우 Checklist 항목을 이용한 개선 조치 보고서의 작성'(삼성서울병원 정흥수 회원), ▲'월별 QC CV 기준, 단일 기준으로 충분한가? 검사 항목별 맞춤 기준 설정 및 적용 사례(삼성서울병원 황보라 회원), ▲'핵의학 검사장비 QC 전산화 시스템 구축'(서울아산병원 정세희 회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각자의 실험실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업무 지식 및 노하우를 타 기관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우수학술구연상은 원광대학교병원 과지종 회원의 연구가 선정되어 시상되었으며,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활발한 학술 교류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2026년도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성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이승모)가 지난 5월 16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와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성황리에 동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230여 명의 회원들이 대거 등록하여 최신 임상화학 동향과 검사실 실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오전에 진행된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은 임상 현장에서 중요성이 대두되는 '인체 내 다양한 Ratio(비율) 분석 및 임상적 의의'를 중심으로 꾸러졌다. 구체적으로는 ▲A/G ratio(알부민/글로불린 비율), ▲AST/ALT ratio, ▲FIB-4(간섬유화 지표) 등 주요 생화학적 지표들의 비율 분석과 관련된 심도 있는 발표들이 이어지며 전문임상병리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에도 서울과 부산 간 하이브리드 원격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어 오후에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혁신적인 특강과



실무 중심의 학술 세션이 진행됐다. 특강 연자로 나선 성현메디텍 권영일 교수는 'Shewhart에서 Transformer까지 (정도관리 75년의 진화와 임상병리사의 Next Chapter)'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통계적 정도관리의 시초부터 최신 AI Transformer 모델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사를 짚어내며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임상병리사가 나아가야 할 차세대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환자 안전 항목 선정 과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주제로 세브란스병원 박지연 회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성민 회원이 각각 발표를 맡아, 실제 검사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승모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은 급변하는 기술 속에서 임상화학 분야의 핵심인 '정도관리와 환자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학술적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부 -

MAST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검사의 급여기준

가. 보험정보: 누745나

나. 급여대상

- 1)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아토피, 비염,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 2) 피부질환(두드러기, 접촉성피부염 등)



다. 산정방법

- 1) 흡입 항원(곰팡이류, 진드기, 집먼지 등)과 음식 항원(우유, 계,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동시 실시 시 1종만 인정함.**
-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또는 흡입 항원 알레르기와 음식 항원 알레르기가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시 실시 시 인정함.**

라. 시행일자: 2020. 2. 1. 시행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가. 보험정보: 누300

나. 급여대상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1)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 2)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다. 시행일자: 2018. 6. 1. 시행



TR
CORPORATION

2026년 공단검진 폐 기능 검사 추가 The Spirokit으로 대비하세요



KAMT NEWS



검사 결과 최신 지침 참고 분석 및 해석 보조

- GINA, GOLD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검사결과분석 지원
- 폐기능검사 지표의 해석 일관성 및 검사품질 향상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검사 가이드 화면을 통한 표준화 된 검사 과정 안내
- 검사 오류 및 재검률 감소로 검사 시간 효율화
- 검사 중 환자 스트레스 및 피로도 감소

국내 생산 기반이 국산 폐기능검사 장비

- 3L Calibration Syringe, 온습도기압계, 검사기 등 모든 장비 국내 생산
- 국제 폐기능검사기 품질기준 ISO 26782:2009에 따른 시험성적서 보유

다양한 검사 환경 대응

- 높은 휴대성으로 병동·외래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 (무선 PACS 연동을 통한 병동검사 지원)
- 공단 폐기능검진 및 특수폐기능검사에서 활용 가능

제품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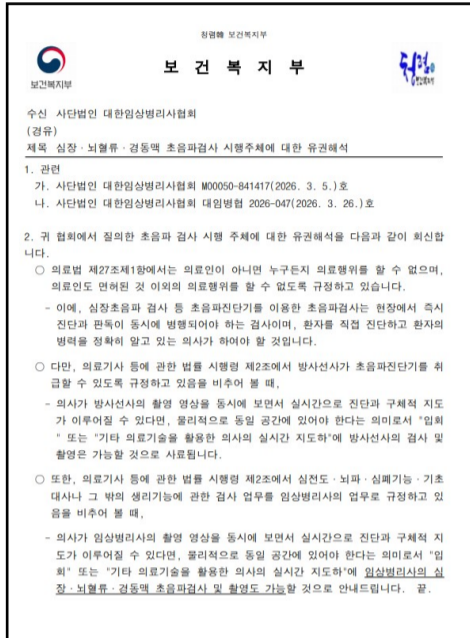
042-719-8823

newxman@theresearcher.co.kr

차세대 의료기기 전문기업
TR CORPORATION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심장 초음파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 기 유



▲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초음파 검사 업무범위 인정

1. 질의의 배경과 심장 초음파 검사와 심전도와의 상관관계

의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임상병리사가 수행해 온 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현장은 곧바로 흔들리게 된다. 심장 초음파 업무가 바로 그러했다. 회원들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협력하며 검사를 수행해 왔지만, 방사선사 측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와 지역 간 갈등, 일부 기관의 어긋난 해석으로 불필요한 고용불안과 심적 부담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질의 회신이 아니라,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임상병리사들의 업무 정당성을 다시 공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었다. 협회는 2025년 9월 9일 심장 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질의를 제기했고, 2026년 4월 29일 마침내 공식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는 협회가 임상병리사 업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왔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결과다.

이번 질의의 출발점은 분명했다. 협회는 심장 초음파가 단순히 영상을 얻는 기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심전도 등 순환계의 생리학적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된 검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상병리사들이 심장 초음파를 포함한 다양한 초음파 검사 교육을 지속해서 받아 왔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의료진과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직역 확대 주장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제도적 확인을 요청한 것이었다.

협회는 특히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가 모두 순환계의 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검사 방법은 다르지만, 심장의 기능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기생리학적 이해와 구조적 평가가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심전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확실하다. 협회는 바로 이 전문성의 연속성을 근거로, 임상병리사의 심장 초음파 업무가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2. 다시 확인된 심장 초음파 시행 주체

이번 회신의 가장 큰 의미는 업무 가능 여부를 감정이나 주장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법과 행정해석의 언어로 다시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데 있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심장 초음파를 비롯한 초음파진단기 이용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가 촬영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의 심장·뇌 혈류·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즉, 의사의 책임 있는 진단 체계 안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수행 가능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3. 방사선사들의 반복 민원과 현장 혼선에 대한 실질적 대응

이번 성과의 가치는 직역 갈등의 맥락 속에서 더 분명해진다. 방사선사 측은 오래전부터 초음파검사를 자신들의 법적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며, 임상병리사의 심장·뇌 혈류·경동맥 초음파 허용 해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관련 보도들에서도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 업무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니다”,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제처 질의,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반복적 문제 제기는 단지 의료기사 속 갈등이 아니라, 현장의 임상병리사들에게는 실제 업무 불안과 고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행정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과 달리 임상병리사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 수행에 대해 제한 또는 시정 요구 등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같은 사안을 두고 지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의료기관과 회원들은 불필요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국가의 해석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 결과 회원들은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나 이의 제기에 직면했을 때, 단순한 관행이나 구두 설명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식 회신과 기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4. 임상병리사의 업권보호의 근거를 확보하다.

이번 유권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하나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임상병리사들이 현장에서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임상병리사의 심장·뇌 혈류·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의사의 실시간 진단과 구체적 지도라는 조건 아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의 업무 안정성을 지키는 근거이자, 직역 전체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번 성과는 협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보여 준 기록이기도 하다.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흔들릴 때 협회는 적극 대응하였고, 방사선사의 반복되는 민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식 질의와 행정 대응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고, 임상병리사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임상병리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한 근거와 가장 신속한 대응으로 회원과 함께할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그 출발점이 아니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의 책임 있는 실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분명한 성과다.

감상평 EVENT



이번 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접수기한 • 2026년 6월 19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상품 받으실 주소

♥제520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회원권익보호-통합돌봄시대, 현장검사 확대 속 임상병리사 권익을 지키다

이은영(정회원) / 전화번호 : 23312

이번 기사는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현장검사(POCT) 확대 속에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검사 확대보다 환자의 안전과 검사 신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전문성 있는 검사 체계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 임상병리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 개정안 상정 거부,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곽민정(정회원) / 전화번호 : 21846

첫 기사 메인화면의 사진은 현장에서 고생하신 협회 관계자분들과 참여하신 임상병리사 회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상정이 보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지도" 중심에서 "처방" 중심으로 전환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정이 무산되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왜곡된 주장과 선동 중단, 의료기사법의 조속한 재논의, 김미애 의원의 책임있는 대응 등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내용은 임상병리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병리협보 기사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창연메딕스
CHANGYEON MEDICS

PROTIA

프로티아 알러지-류 128PM (제기 시안 22-4425호)
프로티아 알러지-류 192D (제기 시안 24-1197호)

저기반역전산 ANA 1B
정밀하고 신속한 결과 (제기 시안 24-11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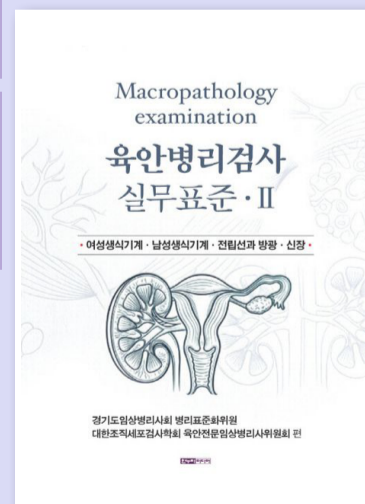
(주)창연메딕스 Co., Ltd Tel: 02-948-0998, Fax: 02-940-9605 E-mail: jee59@hanmail.net

책소개

육안병리검사 실무표준 II

저 자: 경기도임상병리사회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출판사: 한누리미디어

추천의 글:
육안전문임상병리사를 꿈꾸는 현장의 임상병리사와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지침서입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장 유광철)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장 조선기)



육안병리검사 실무표준II는 육안병리검사 실무에 필요한 각 장기별 해부학 및 생리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육안병리검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특히 TNM staging를 고려하여 조직 표본을 제작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장기별 육안병리에 대한 다양한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육안병리검사의 발전과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월 언론보도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요자 중심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 
의료기사들 '의료기사법 개정안 조속 상정·통과' 촉구
- 
임상병리사협회 "야간검사실 최소인력 관행 환자 안전 위협"
- 
임상병리사 등 1200명 집회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협회를 회원에게!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한

NEW

오른알: 2026년 7월 1일

홈페이지 오픈

홈페이지 분리 운영

- 협회, 교육센터, 학술센터, 시도분과, 영문, 웹진
-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

모바일 앱 종료

- 대면 보수교육 출결 모바일 홈페이지 QR코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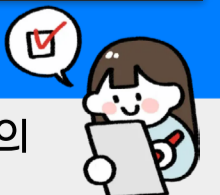
모바일 결제 서비스 재개

- 모바일 결제 서비스 재개: 2026.7.1.(수) ~

STOP

-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2026. 6. 28.(일) ~ 6.30.(화)
- 가상계좌 결제 서비스 중단 : 2026. 6. 26.(금) ~ 30.(화)
- 협회 모바일 앱(App) 서비스 종료: 2026. 6. 30.(금)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회 · 시도회 · 분과학회 SNS 안내

해당 채널을 누르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 추가 해주세요.



▶ 중앙회 SNS 바로가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 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 시도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 시도회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임상병리사회

대구광역시 +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
임상병리사회

충청북도 +
임상병리사회

강원특별자치도 +
임상병리사회

▶ 분과학회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2026 제주학회 부영호텔 & 리조트

정회원 혜택

한정수량 운영

선착순 마감



협회 특별가 숙소 안내

- 대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
- 예약방법** 정회원 전용 예약 사이트
- 주의사항** 객실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며, 준비된 객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를 계획하고 계신 정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약하러 가기



누르시면 정회원 전용 예약 사이트로 연결됩니다.